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해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에니에아마 너를 뚫어야 '16강 골인'

〈예선전 최고의 수문장〉

■ 허정무호, 나이지리아전 관전포인트

울퉁불퉁 그라운드·짧은 잔디 적응 승부 열쇠 부부젤라 붙어대는 6만여명 광적 응원도 변수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원정 월드컵에서 사상 첫 16강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3일 오전 3시30분(이하 한국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의 더반 스타디움에서 나이지리아와 2010 남아공 월드컵 조별리그 B조 3차전을 치른다.

1승1패의 한국은 16강 진출의 좋은 기회를 잡았지만 2연패를 당한 나이지리아 역시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이 남아 있어 총력전이 예상된다. 한국-나이지리아 경기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본다.

◇에니에아마 뚫어야 '새 역사' = 나이지리아는 아르헨티나(0-1 패)와 그리스(1-2 패)에 잇달아 패했지만, 빈센트 에니에아마(하포엘 텔아비브)라는 결출한 골키퍼를 보유하고 있다. 에니에아마가 없었더라면 나이지리아는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의 공세를 1골로 막아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스와 격돌에서 미드필더 사니 카이타(알라니아 블라디카프카스)의 퇴장으로 10명이 싸우면서 한 골 차 패배로 끝낼 수 있었던 것도 에니에아마의 활약 때문에 가능했다. 팀은 패했지만 두 경기 연속 MVP격인 '맨 오브 매치'로 에니에아마가 선정된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 2002년부터 나이지리아 국가대표로 뛴 에



니에아마는 20일 현재 이번 대회 선발 부문에서 1위(14개)에 올라 있다. 에니에아마를 뚫어야만 한국의 원정 월드컵 첫 16강 진출도 가능하다. ◇진디 적응이 관건=한국과 나이지리아 선수들은 경기를 치를 더반 스타디움에서 훈련 한번 해보지 않고 맞대결한다. 더반 경기장은 대회 개막 직전까지 공사를 벌였는데, 잔디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전에 이번 대회 조별리그 세 경기를 치러 현재 그라운드 사정이 좋지 못하다.

결국 한국 대표팀은 대회 조직위원회와 유로 경기 전날 더반 스타디움에서 해야 할 공식 훈련을 팀 훈련장인 프린세스 마고고 스타디움에서 하고 결전에 나선다. 태극전사들은 21일 오후 더반 스타디움을 찾아 잔디를 한번 밟아보고 팀 훈련장으로 이동한다. 물론 나이지리아도 조건은 같다. 어느 팀의 경기력에 더 영향을 미칠 지가 관건이다. 게다가 더반 스타디움의 잔디는 짧다. 패스 속도가 빨라져 신경써야 한다. <나이지리아 광적 응원도 변수= 나이지

리아 팬의 광적 응원도 걱정이다. 이번 대회 조직위원회가 밝힌 더반 스타디움의 좌석 수는 6만2천760석으로, 이중 한국 응원단이 500석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나이지리아 팬이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전 문제까지 위협할 정도로 광적인 나이지리아 팬의 응원은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FIFA 랭킹 한국보다 26계단 높아 아프리카서도 손꼽히는 강호

■ 나이지리아 어떤팀?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을 목표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에 나선 축구대표팀의 조별리그 최종전 상대인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도 손꼽히는 강호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도 이번 월드컵에 진출한 아프리카 6팀 가운데 카메룬(19위) 다음인 21위를 지키고 있다. FIFA 랭킹 47위인 한국보다 무려 26계단이나 높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두 차례 우승(1980년, 1994년)을 차지했고,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과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에서도 세 차례(1985년, 1993년, 2007년)나 정상에 오르는 등 각급 대표팀이 세계무대에서 눈부신 업적을 남겼다.

나이지리아는 월드컵 예선에서 2차 및 최종예선 12경기(9승3무)를 치르면서 20골을 넣고 5골만 내주는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했다. 주장이자 중앙 수비의 핵심인 조세프 요보(에버턴)와 스트라이커 야쿠부 아이예그베니(에버턴)와 오바페미 마틴스(볼프스부르크)를 비롯해 그리스전에서 선제골을 뽑은 칼루 우체(알메리아)는 물론 아직까지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한 '백전노장' 느왕퀴 카누(포츠머스) 등은 주의해야 할 선수들이다. 여기에 왼쪽과 오른쪽 날개를 모두 펼 수 있는 측면 미드필더 피터 오메링기(로코모티브 모스크바)와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맨 오브 더 매치'에 연속으로 뽑힌 골키퍼 빈센트 에니에아마(하포엘 텔아비브)도 빼놓을 수 없는 요주의 대상이다. /연합뉴스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프린세스 마고고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 축구대표팀 훈련에서 박지성이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킬러' 박주영 속죄포 쏠까

염기훈과 투톱 골사냥



'나이지리아를 제물 삼아 지독한 월드컵 불운도 날려버리겠다' 축구대표팀의 간판 골잡이 박주영(25·AS 모나코)이 오는 23일(한국시간) 나이지리아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B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을 앞두고 가슴 속에 깊이 새기는 다짐이다. 박주영의 발끝에서 시원한 골이 터진다면 한국의 사상 첫 월드컵 원정 16강 꿈도 현실이 될 수 있다. 공격의 해결사 특명을 받은 박주영의 어

께가 무거운 이유다. 허정무 감독은 박주영이 4-2-3-1 전형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선 아르헨티나와 조별리그 2차전과 달리 4-4-2 전형의 투톱 시스템으로 나이지리아를 공격할 계획이다. '원발 달인' 염기훈(27·수원)이 박주영과 공격의 쌍두마차로 나선다. 이 경우 최일선에서 고립됐던 박주영으로선 수비수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며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된다. 박주영은 '슈퍼이글스' 나이지리아와 운명의 3차전이 지독한 '월드컵 불운'을 털어 버릴 절호의 기회다. 박주영은 아르헨티나와 2차전에서 자책골로 통한의 선제골을 헌납했다. 하지만 박주영은 나이지리아와 맞대결에서 기본 좋은 역전승을 낚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지난 2005년 네덜란드에서 열렸던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때 2차전에 맞붙었던 나이지리아와 경기에서 2-1 역전 드라마의 발판이 되는 동점골을 사냥했다. 당시 한국은 0-1로 끌려가 패색이 짙었지만 박주영의 동점골이 기적적인 역전승의 디딤돌이 됐다. 박주영은 후반 종료 1분 전 백지훈이 프리킥을 얻어내자 그림 같은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나이지리아의 골망을 흔들었다. 1-1 동점을 만든 한국은 거세게 몰아붙인 끝에 후반 추가 시간 백지훈의 역전골까지 터지면서 2-1로 이겼다. 박주영은 앞선 인터뷰에서 "아르헨티나전에서 잘못된 실수는 인정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나이지리아와 경기에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 자책골 때문에 심리적으로 문제는 없다"며 최종 3차전 승리에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연합뉴스

나이지리아 무조건 깨주마

모두가 '죽음의 조'... 3차전 빅매치

23개국 예선 최종전서 16강 결판 태극전사, 16강 가면 8강도 보여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대회에서 예상 밖 승부가 속출하면서 조별리그 3차전부터 토너먼트와 다름없는 단판 승부가 이어지게 됐다. 21일 오전까지 16강 진출이 확정된 나라는 네덜란드와 브라질뿐이고 반대로 탈락이 확정된 곳은 카메룬 하나다. 32개 나라 가운데 26개국이 2경기를 치렀지만 23개 나라는 최종 3차전에서 16강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또 아직 한 경기씩만 치른 H조도 '무적함대' 스페인이 1차전에서 패하는 혼전 양상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까지 끝나야 16강 진출팀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거의 모든 조에서 16강 진출을 향한 뜨거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조별리그 3차전부터 사실상 토너먼트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당장 2006년 독일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이탈리아가 2무승부로 마지막 슬로바키아와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16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고 '축구 중가' 잉글랜드 역시 2무에 그치고 있어 슬로베니아와 3차전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 조별 혼전이 이어지면서 16강부터 우승 후보들끼리 맞대결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축구 강국'들이 순리대로 1위를 차지했다면 8강 이후에나 펼쳐질 '빅뱅'이 토너먼트 초반부터 열리는 것이다. C조와 D조에 배치된 잉글랜드와 독일이 1,2위로 잇달면 당장 16강에서 맞붙게 되고 E조의 네덜란드도 가장 먼저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지만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니다. F조의 이탈리아가 조 2위로 올라오면 16강에서 바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전형적인 '슬로 스타터'가 때문에 첫 두

경기에서 비겼다고 만만하 볼 상대가 아니라면 '오렌지 군단'은 이렇 F조 판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죽음의 조'로 불린 G조는 16강까지도 험한 길이다. H조의 스페인이 첫 경기에서 스위스에 0-1로 탈미를 잡히는 바람에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2위인 브라질과 스페인이 16강에 만나는 시나리오가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전통의 강호들이 16강부터 물고 물리는 바람에 의외의 '신데렐라'가 탄생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16강에 오른다면 A조의 우루과이 또는 멕시코를 상대할 것이 유력하고 거기가 이기면 C조 1위-D조 2위의 승자와 8강에서 만난다. 잉글랜드와 독일이 C조 2위와 D조 1위로 잇달면 한국이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대진운을 맞게 되는 셈이다. 대회 초반 골이 터지지 않아 '재미없었다'는 혹평을 들었던 남아공월드컵이 조별리그 3차전부터 '버라이어티'가 펼쳐지며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자중지란 프랑스 집단 훈련 거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조별예선에서 최악의 경기력으로 탈락 위기에 몰린 프랑스 대표팀의 자중지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스트라이커 니콜라 아널카(첼시)가 레몽 도메네크 감독에게 대들다 대표팀에서 퇴출된 데 이어 21일 선수단이 집단으로 훈련을 거부하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AP와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선수단은 숙소가 위치한 남아공 나이스나에서 평소대로 버스를 타고 훈련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주장 파트리스 에브라(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몽 도메네크 감독은 버스에 남아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이 대화를 마치고 버스에 나오자 대표팀 트레이너는 경기장에 연습용 고틀을 세우며 훈련 준비에 나섰다. 갑자기 에브라가 트레이너와 말다툼을 시작했고, 도메네크 감독이 다가와 중재를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트레이너가 화를 내면서 ID카드를 집어던지고 경기장을 떠나갔다. 에브라는 대표팀 미디어담당관에게 쪽지를 전해준 다음 선수단 전체를 이끌고 버스에 올라갔다. /연합뉴스